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6.4.26(수) 석간부터		
			정책홍보 담당관실	'06.4.25	매 수	총 7매
과학기술부	담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과 장	배태민	02)2110-3780 (011-9027-5323)		
정책홍보 담당관실		사무관	김영규	02)2110-3786 (010-6230-0509)		

미래기술혁명을 주도할 융합기술발전을 위해

범부처적인 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 김우식 과기부총리 주재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

□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장 :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과학기술 혁신본부장)가 4월 26일(수)에 개최될 예정이다.

< 회의안건 >

- ① 해양심층수 실용화 추진계획(안)
- ② 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방안(안)
- ③ 연구비 집행절차 개선현황 및 향후계획(안)
- ④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대상과제 선정(안)
- ⑤ 제2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

(1) 첫 번째 안건인 「해양심층수 실용화 추진계획(안)」은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위치하는 해양심층수를 적극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해양심층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법·제도 정비계획을 담고 있다.

i) (추진배경 및 해양심층수 활용분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해심층수는 한해성(寒海性) 수산자원의 회복과 증강을 위한 다각적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식수, 식품첨가제, 유용물질, 청정에너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이를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ii) (추진방안) 정부는 민간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 등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될 2단계사업을 통해(1단계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어류 증·양식, 상수도 수자원 개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이용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ii) (법·제도 정비계획)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을 위해 금년 6월 (가칭)해양심층수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금년 12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해양심층수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취수해역을 지정하고 내년 2월에는 해양심층수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 두 번째 안건인 「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방안(안)」은 BT·ET·NT·IT 등 이종기술간 융합을 통해 기존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융합기술의 범부처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i) (종합발전계획 수립방안) 종합발전계획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 과학기술기본계획, 부처별 융합기술연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 후 금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계획수립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전문가를 추천하여 융합기술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의 운영을 통해 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에 관한 현안을 종합조정·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ii) (범부처 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융합기술종합발전 계획에는 크게 다음 7가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 ① '07년부터 '11년까지의 융합기술 발전 목표
- ②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과 기술예측결과 분석
- ③ 차별화된 전략분야 도출
- ④ 기술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전략 수립
- ⑤ 융합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
- ⑥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융합기술연구센터 구축방안
- ⑦ 융합기술에 대한 국가 R&D 종합조정방안

(3) 세 번째 안건인 「연구비 집행절차 개선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등 다양한 연구비집행절차 개선 현황과 향후 추가 개선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i)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 연구비 지급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지급절차를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비 지급기간이 종전 60일 이상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ii) (전자협약제도 도입) 종이에 의한 협약의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약체결을 위해 연구개발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과거 여러 절차와 150매의 서류가 필요하던 방식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iii) (연구관리서비스품질 개선) 정부지원 과제관리의 쏠단계에 대해 연구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원 클릭 과제확인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과제관리 정보를 과제관리자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중이다.

iv) (향후계획) '06년도 하반기에 연구비 정산까지 디지털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적용시킬 계획이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범부처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06년 5월부터 주요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현장 순회설명회 개최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4) 네 번째 안건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대상과제 선정(안)」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의 '07년도 신규 추진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과제 선정결과를 담고 있다.

i) (경과) '07년도 신규추진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8개 과제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4월 10일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의 '허혈성 혈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정통부의 '디지털 액터 제작 사업'등의 2개 과제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후보과제로 선정되었다.

ii) (대상과제 및 선정방식) 사전타당성조사 대상후보과제는 국내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개발이 종료 또는 완료단계에 있는 범국가·범부처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이며 혁신본부는 과제 선정을 위해 먼저 대상과제의 경제성·공익성·기술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매긴 후 투·융자형태의 지원 사업과 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과제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iii) (심사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 산학연 전문가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부합성 등 4개 항목을 심사했으며 선정된 2개의 후보과제는 금년 7월까지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추진대상과제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 실용화 사업추진단 구성과 사업계획서 수립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 다섯 번째 안건인 「제2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은 우리나라의 천연물신약 핵심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2010년까지 천연물신약 6개 이상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천연물 연구개발능력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i)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1차 계획기간(2001년~2005년)중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산업화 집중투자, 연구기관간 정보공유와 교류활성화, 전문인력 양성과 남북 천연물 학술교류 확대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여 전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80%까지 제고한다는 구체적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ii) (세부 추진전략 - 천연물 신약 개발) 서양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료약으로 2010년까지 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신약 6종을 개발하고 국제규정에 맞는 연구·평가방법 개발과 함께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ii) (세부추진전략 - 기술수준 향상) 신약의 치료효과와 기능 탐색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 검증시스템을 개발하고 동서양이 융합된 핵심기술 확보와 핵심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 iv) (세부추진전략 - 연계기능 강화) 현장 중심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존의 천연물과학연구소 기능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한 천연물 연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v) (재원조달방향) 제2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6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투자재원은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